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대림 시기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카 3,6)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 10:00, 대철실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을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현(10/25기준) 적립금액(\$76,263)

※주소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12/ 8(일) 대림 제 2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12/10(화) 대림 2 주간 화요일 (본당 20:00)

▶12/15(일) 대림 제 3 주일(본당 11:00, 공소 17:30)

◎판공 성사

▶일시 12/19(목) 18:00 ~

해당 구역장님으로부터 성사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매일미사

각 구역장님은 오늘까지 구역별 매일미사 책 대금을 선교/행사분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및 성탄 대축일 미사 전례연습

▶ 전례분과와 해설자 - 일시: 12/10(화) 미사후 대철실

▶ 전례 분과와 복사단 - 일시: 12/22(일)

◎성탄 맞이 본당 대청소

▶다음 주 12/15(일) 대림 3 주일 미사 후

▶청소 구역은 게시판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성가대 - 지휘자, 반주자를 찾습니다.

문의: 성가대 임예천 글라라

◎성탄 공연

▶장르: 노래, 합창, 연주, 춤, 연극등 모든장르

▶대상: 각 구역및 본당 제단체

※ 각 구역장들은 간략하게 공연에 필요한 사항을 선교/행사분과장 김한욱 에릭 형제님께 문의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꽃동네 의류 도네이션

겨울용 의류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도네이션 품목은 김한욱 에릭 선교분과님과 확인 후 복도 벤치에 있는 상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특강

오늘 미사 중 본당 신부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공소 소식

▶금일 간식은 송인순 에밀리아나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공소 판공성사(12/8, 12/15, 12/22) 미사 시작 30 분전

▶12 월 공소 세레 축일자 1 명 12/20 에리카(맹선민)

단체 소식

◎레지오

▶12/8(일) 미사 후 꾸리아 회합

구역모임(소식)

12/ 8: 2 구역 소고기 무우국(\$5/\$3)

12/15: 3 구역 12/22: 4 구역 12/29: X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51 명)			
주일헌금	\$1450	교무금	\$1995
감사헌금	\$0	성전건립	\$20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 \$100(익명)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12 월 본당 세레 축일자 (29 명)

12/ 1 세라피나 (박채원)

12/ 3 루치오(김태훈)

12/ 5 스테파노(최우중)

12/ 9 발레리아(김나경)

12/10 율리아(우경숙)

12/12 유스티노(김재현)

12/13 루시아(이혜영, 홍예원, 조혜자, 이민아, 조인순)

12/16 아델라이드(김단비)

12/24 일미나(김진희)

12/25 아나스타시아(김시현), 노엘(라)(이우성, 김정유)

12/26 스테파니(정혜자), 스테파노(민중환, 최두원)

크리스티나(이순옥)

12/27 사도요한(황유진, 이관휘, 권병학, 이용원, 이준서, 하재석, 최정훈)

12/31 바올리나(민옥희)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2/ 8	박규혜 카타리나	이지민 이사벨라 유세진 라파엘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김한욱 에릭 채정희 올리비아
12/15	권희진 요안나	유서진 다니엘 이소민 그레이스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12/22	신낙홍 마리아	최다희 보나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이인선 켄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

하느님을 향한 삶의 방향 전환

복산 성당 주임
강현철 펠릭스 신부

대림 시기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희망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희망과 기다림의 시간 안에서 오늘 복음은 구세주 오심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루카 복음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유다 총독 본시오 빌라도, 헤로데를 비롯한 3명의 영주, 그리고 대사제 한나스와 가야파의 이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구세주 예수님 탄생의 역사적 신빙성을 강조합니다. 구세주의 오심은 꾸며낸 이야기, 단순한 신화(神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확인되는 분명한 사실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하느님 구원의 약속이 구약을 넘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는 곧 구세주 오심을 준비하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와 연결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그분의 길을 곧게 내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라는 말씀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구분되는 하느님을 향한 삶의 방향 전환, 곧 □회개의 요청□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는것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은 새 출발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자 죄에 대해 뉘우치고 아파하는 것이지, 후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뉘우침만을 붙들고 온통 그쪽에만 신경 쓰는 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새 출발을 위한 □성찰□이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반성□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끊어버림으로써 모든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마음과 정신, 행동의 실천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하고, 더 많이 참고 배려하고 나누는 실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참된 회개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맡기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근본적 결단이요 엄숙한 선택 행위입니다. 회개의 길을 걷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느님께서 자비와 의로움으로 이끌어 주실것이며(1독서), 우리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는 확신으로(2독서) 구세주의 오심, 성탄을 준비하는 매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대림 주보

<http://cafe.daum.net/stpeter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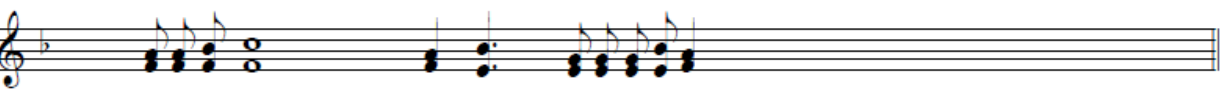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대림 2 주일 (인권주일) (2024. 12. 8.)

제 1 독서 바룩서의 말씀입니다.5,1-9
화답송 시편 126(125),1-2 ㄱ ㄴ .2 ㄷ ㄹ -3,4-5,6(◎ 3 참조)



후렴.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겔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1,4-6,8-11
복음 환호송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